

“청소년 범죄, 함께 고민하는 계기 됐으면”

소년범 혐오하는 자비 없는 판사역 모두에 메시지 던지는 놀라운 작품 신인들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 넷플릭스 드라마...25일 공개 앞뒤



기교가 아닌 진심으로, 재미를 넘어선 메시지를 전한다. 그만큼 운명적으로 다가온 작품이다.

팜파탈부터 코믹 캐릭터까지, 장르와 역할을 가리지 않고 맞춤형 연기를 선보여온 김혜수(52)가 이번에는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는다. 2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무대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죄 소재를 전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법정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촉법소년(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위협 수위에 도달한 청소년 범죄와 이를 조장하는 비틀린 현실을 꼬집으며 치열하게 사회적 화두를 던진다.

●“영상매체의 순기능으로”

김혜수는 청소년 범죄라는 예민한 소재를 담아내는 “이야기의 힘”에 마음을 빼앗겼다.

“단순히 시리즈의 재미를 넘어 메시지를 던지는 놀라운 작품이에요. 극적 재미와 완성도를 갖춘 것은 물론, 나아가 영상매체의 순기능을 해줄 작품이라 확신했죠. 의도하는 메시지가 시청자의 가슴에 가 닿기를 바라요. 청소년 범죄



배우 김혜수가 22일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에 대한 유의미한 고민을 함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평소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고 고백했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강력 범죄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소년법정의 현실”을 알게 해준 ‘소년심판’이 마음을 더욱 뜨겁게 울린

이유다.

“그동안 소년범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됐죠. 판사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었던 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노 혹은 판결에 대한 감정적 접근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족도 100%의 연기 앙상블”

극중 김혜수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역을 연기한다. 자비 없는 판결을 내려온 그는 소년범에 대한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또 다른 판사 김무열·이성민·이정은을 만나면서 현실에 맞닥뜨린다.

“대본을 보면서 다른 판사 역할을 누가 연기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배우들 모두 연출자 홍종찬 감독이 생각하는 0순위였어요. 완성된 캐스팅 라인업을 듣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흥분했어요. 강력한 신념을 지닌 네 판사 캐릭터의 시너지, 동시에 네 배우들의 앙상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촬영장에 갈 때마다 설렘이었죠.”

같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기한 신예들의 놀라운 연기도 현장에서 늘 긴장하게 했다. “새로운 얼굴들의 살아있는 숨소리와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됐다.

“판사 역할을 빼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을 연기한 연기자들은 경력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신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줬죠. 해외 논문과 사례를 찾아보고 오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태도에 정말 놀랐고 자극을 받았어요. 생소한 이들이니만큼 캐릭터가 모두 실제 인물처럼 다가갈 거라 확신해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판타지 영화 주인공이 된 ‘테스 형’

나훈아, 새 앨범 ‘일곱 빛 향기’ 공개 수록곡 ‘맛짱’ 뮤직비디오 깜짝 출연 ‘누망’ ‘매우’ 등 7곡 직접 작사·작곡

“아아아 세월아 ‘맛짱’ 한번 뜨고 싶다!” 역시 ‘가황’은 달랐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냐”며 ‘테스 형’에 기대기도 했지만, 이젠 그 앞에서 이길 장사 없다는 흐르는 세월에 “맛짱 한번 뜨자”며 호기롭게 맞선다. 일흔 다섯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특유의 호탕함을 넘어서는 결기이다.

22일 2년 만에 새 앨범 ‘일곱 빛 향기’를 내놓고 돌아온 나훈아가 단연 ‘아이돌’급



가수 나훈아가 22일 공개한 신곡 ‘맛짱’의 뮤직비디오에서 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변신했다. 사진출처 | 다날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

시선을 끈다. 이날 오후 함께 공개한 수록곡 ‘맛짱’ 뮤직비디오에 한 편의 판타지 영화 속 주인공으로 나섰다.

긴 은발의 주인공이 숲속의 땅 깊숙이 묻힌 검을 뽑아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마치 할리우드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

나 드라마 ‘도깨비’의 공유와 흡사한 인상을 남긴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치켜뜬 표정에 진지함이 가득하다.

이날 소속사 다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훈아는 흐르는 세월을 뜻하는 ‘시마(時魔·시간의 마귀)’를 칼로 무찌르는 전사로 분했다. 나훈아가 영웅으로 나서 마왕과 진정한 한판 대결, 이른바 ‘맛짱’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측은 “국내 뮤직비디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한국형 판타지 무협 장르”라며 “최신 시각효과기술(VFX)을 활용해 마왕에 맞서는 여정을 영화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훈아는 ‘누망’, ‘친정엄마’(아내의 엄마), ‘사랑의 지혜’, ‘매우’(梅雨), ‘곤’(미련 꿈뚱이), ‘체인지’(Change) 등 7곡의 앨범 수록곡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꽃피면...’ 마친 이혜리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로맨스사극서 밀주꾼 완벽 연기 “이젠 어떤 장르도 무섭지 않아”

그를 걸스데이의 멤버 이혜리(28)가 연기의 꽃을 피웠다.

이혜리는 22일 종영한 KBS 2TV 로맨스 사극 ‘꽃피면 달 생각하고’로 안방극장에서 새삼 존재감을 발휘했다. 금주령이 내려진 조선시대의 밀주꾼을 연기하면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팔도를 누볐다. 평소 비타린 같은 발랄한 매력도 여전했다. 그의 톡톡 튀는 개성 덕분에 드라마는 ‘독특한 퓨전 사극’으로 입소문났다.

21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난 이혜리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가량 고군분투했던 촬영현장을 떠올리며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뭉클하다”고 말했다.

“역척스러운 캐릭터를 위해 거름으로 쓰이는 소동 발을 굴렀죠. 사전제작으로 지난해 11월 촬영을 마쳤지만, 실제 방송을 보면서 함께 고생한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있죠. 밀주꾼 잡는 경찰 역의 유승호(29) 오빠가 파트너로서 힘이 많이 됐어요. 무언가 고민할 때마다 저의 장점을 짚어주며 힘을 불어넣어 줬죠.”

촬영이 없는 날에도 쉬지 않았다. 동료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을 만들어 연기 공부해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연기 선생님께 1대1 레슨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연극·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나서는 연기자들과 연습하고 있어요.

연기 선생님이 ‘연예인인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시야가 정말 탁 트이는 기분이에요.”

5년째 교제해온 남자친구 류준열은 “든든한 응원군”이다. 그에 대한 질문에 이혜리는 “아직도 답하기 어렵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친구)를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꽃피면 달 생각하고’ 대본을 보고는 ‘네가 했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다’는 의견을 줬어요. 고맙죠.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인간으로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2012년 SBS ‘맛있는 인생’으로 시작한 연기는 올해로 10년째다. “어떤 장르도 무섭지 않다”는 마음으로 곧 다가올 30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혜리

“30대에 더 많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를 정말 잘 보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연기에 도전하는 아이돌 후배들에게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사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선

‘기부천사’ 가수 선이 최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방문해 약 3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탄 봉사 활동에 나섰다. 선은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연탄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후한의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선의 나눔 활동 취지에 깊이 공감해 1000원 상당의 연탄 1만2500장을 기부, 온기를 더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YG참가 활동, 소아암 환자 및 네팔 어린이 학교 설립 위한 기부 활동 등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소민, tvN 예능 ‘식스센스’ 시즌3 하차



전소민

배우 전소민이 3월 11일 첫 방송되는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즌3에서 하차한다. 발 부상과 최근 종영한 채널A 드라마 ‘쇼윈도’ 촬영 일정 등이 재조정되면서 하차가 불가피해졌다. 22일 tvN은 “스케줄 조율을 위해 제작진과 소속사측이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번 시즌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소민은 개인 일정 도중 발을 잘못 디터 부상을 입고 지난달 19일 발 부위 골절 수술을 받았다. 앞서 ‘식스센스’ 시즌1·2의 고정 멤버로 출연해 활약했다.

조영수, 2년 연속 KOMCA 편곡상 대상



조영수

작곡가 조영수가 2년 연속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편곡상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열린 시상식에서 조영수는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대상 대상을 받았고, 2015년 편곡상, 2016년 작곡상과 편곡상, 지난해 편곡상을 수상했다. 1996년 대학가요제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한 조영수는 2003년 걸그룹 주원리의 ‘바보야’를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SG워너비 ‘라라라’,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다.